

신행수기

마음 찾아가는 길목 <하>

이정숙 (시인)

그러나 오로지 절 수행의 기쁨을 누리는 재미로 전국을 헤매는 동안,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끔찍한 여자로 변해 있었다. 앞뒤 사람 피한다며 맨 앞자리에서 신나게 절을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끌면 그들의 기도를 방해한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더운 것을 찾아내지 못하고 영하의 겨울에도 얼음처럼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쓰는 요란을 떨었다.

그것이 기도객의 입에 오르내리면 그들의 기도를 방해한다는 것도 모르고 오히려 '내 정도는 해야지...' 하는 아만심이 생겼던 것이다.

돌이켜 보면 수행이란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남몰래 하되, 결코 이웃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되는 일이었다. 수행이 깊어질 수록 티를 내지 않고 차분하게 정진하되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도 저절로 솟아나야 한다.

'나 정도는 해야지...' 아만심 생기면서 기도객들에 눈살

부처님 법을 열심히 따르다 보면 반드시 때에 맞는 스승이 나타난다고 나는 믿고 있다. 그런 일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삼주 보살이 정법인지 아닌지, 아직 정법에 대한 확고한 개념이 없을 때였다.

"야, 동생아, 너 빨리 와라. 백련사에 서웅 큰스님 친견하러 가자."

삼주 보살과 가까워지자 우리는 언니 동생 하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 그때만 해도 서웅 스님이 누군지도 몰랐다. 그냥 따라나섰다.

서웅 큰스님은 하얀 신선처럼 고운 스님이셨다. 삼주 보살을 따라서 3배를 올렸다. "제게 자주 오는 동생인데, 기도를 시켜 보았는데 곧잘 하네요. 점점 좀 해주셔요."



그림·김흥민

스님께서 나를 친견하러 바라보셨다. "무슨 기도를 하나?" "그냥 절만 해요. 힘닿는 데까지요." "기도는 왜 해요?" "재밌지 않아요? 보너스로 바랐던 것이

루어지고요. 더러는 저축도 하구요." 스님은 빙긋이 웃으셨다. "재밌다? 그렇지, 재밌지... 그러나 너무 과하면 그런 기도가 아냐... 절도 좋지만 엄불도 좋은 기도야. 참선도 그렇고. 꼭 멀리 나서야 기도가, 내가 있는 곳은 다 기도 처야." 하시면서 글씨 한 점과 <임제록(臨濟錄)>을 주셨다. 스님이 주신 책이어서 끝까지 읽었으나,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한글이 어렵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지금도 나는 <임제록>에 대해서는 상식 정도일 뿐 글 행간에 감춰진 뜻을 잘 모른다.

하지만 서웅 스님을 친견한 후 나는 변하고 있었다. 지나치게 먼 기도도량으로 다니려 하지 않고 장소가 어느 곳이든 틀

만 나면 관세음보살 염불을 하게 됐다. 남에게 보이려는 것처럼 맨 앞에서 하던 절 수행도 맨 뒷자리로 바뀌었다.

<임제록> 한 권을 겨우 읽은 것 같았는데, 그 뒤부터 불교에 관한 다른 책을 읽기가 수월해졌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부처님은 그릇 만큼 스승님과과의 인연을 만들어 주신다. 부처님을 믿는 시택으로 시집과서 마지못해 시어머님을 따르다가, 친구를 따라 점치러 갔다가, 그 인연으로 108배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 각 기도도량을 미친 듯이 돌아다녔다.

지금은 타계하고 없지만, 삼주 보살을 만나지 않았다면 부처님과의 인연이 없었을 수도 있다. 나에겐 목사동생이 있고 또 목사가 곧 골 쪼가 들고 장로에, 권사에, 집사로 뻗어난 7남매의 맏맏인데 부처님과의 만남이 쉽지 않았을 터이다.

또 그녀가 어떤 업으로 인해 삼주씨로

'나 있는곳이 기도처' 서웅 스님 큰 격려 마음찾기 여행 계속

사람들의 운명을 상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웅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사는 진정한 불자가 아니었다면 마음 찾아가는 나의 여행은 뒤죽박죽이 됐을지도 모른다.

마음 찾기 시작한 지 30여년. 절하기, 염불하기, 참선하기, 사경하기, 성지 찾아가서 스승님들의 숨결 느끼기 등 단에는 숨가쁘게 신행하며 살아 왔다.

아직도 어느 하나 마음자리를 낙점(落點)을 얻지 못했지만 바로 거기, 내가 앉아 있는 자리가 곧 마음자리라는 말 뜻을 새겨둘 수는 있게 된 것 같다.

말 뜻이나 알아 듣게 되니가 급해진다. 해지기 전에 집에 가야지 하던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다.

대문 앞에서 귀가 늦어진 자식을 격정스레 기다리고 계신 엄마의 모습이 부처님님을 알아 차릴 만큼도 됐다. 그래서 나는 큰 다짐을 했다.

"그래, 아직은 마음자리를 찾지 못했지만, 부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가 반겨 주실 거야. 자비의 넓은 가슴으로 보듬어 주실 거야. 그래서 마음찾기를 계속할 거야. <화엄경> 안의 제불 보살님의 계승을 사경하며 마음찾기를 멈추지 않을거야." 라고 (끝)

킬레이 수행일기 <하>



정경운
법무사 '삼보선원' 지도법사

'무(無)'자 화두를 들 때는 앞뒤가 콕 막혀 답답했으나 돌이켜 보면 그때가 좋은 시절이었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는 스승님(종달 이희익) 거사께 입실하는 시간이었다. 여기서 입실이란 내가 참구하는 화두의 점검을 받기 위해 스승과 독대하는 순간을 말한다. 나는 토요일은 등촌동 스승님 댁으로 가서 입실했고, 일요일은 정릉 삼보선원에 나갔다. 그러기에 휴일은 자연히 수행정진하는 날이 되었다.

함께 공부하던 법장, 법천 거사와 나는 입실시간에 늘 참석했다. 우리는 평범한 직장인들이었지만 누구 한 사람도 좌선과 입실에 나태하지 않았다. 함께 시작하여 밀고 당겨줄 도반이 있다는 건 이 공부하는데 더할 수 없이 큰 원군이 된다. 법천은 1995년 해인사로 출가해 지각 스님으로 모습을 바꾸었고, 법장 노장은 최근에 <생활 속의 좌선수련 20년>이란 책을 만들어 전국의 젊은이를 상대로 좌선 보급에

일이다. 89년 5월 21일 오후 3시50분 두 번째 좌선시간이었다. 죽비소리에 곧 입정했는데 법당 바깥에서 '각! 각!' 하고 산세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들었다. 그 순간 나는 존재가 산산조각이 났다. 공이 새소리는 본래대로 작게 들릴 뿐이었다. 89년 6월 4일 일요일 문경 봉암사 조실 서암 스님께 입실했다. 내가 스님한테 '어떤 것이

'어떤 것이 스님의 본래면목입니까?' 서암·혜암 스님 등 친견 탁마받아

심함을 기울이고 있다.

당시 삼보선원에는 법전 한기정, 도심 김기린, 법원 조보환 거사 등 뛰어난 선배들이 선방을 이끌어 가고 계셨다. 우리는 선배들의 지도아래 심신을 갖고 수련할 수 있었다. 물론 수행의 장소는 집이든 사무실이든 차속이건 가리지 않았다. 눈을 뜨고 있으나 마음 속에는 항상 화두가 맴돌았다. 화두 외의 바깥 사물에는 관심이 적어졌으니 가정용 꾸러기가 하는 우리들이라 그렇다고 생활을 등한시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좌선공부를 5년쯤 해 나갔을 즈음 스승님이 몸을 가누시기 어려울 정도로 노쇠해 가셨다. 병중이신데도 토요일 입실 받으시는 것만은 거르지 않으셨다. 스승님은 말씀하시기가 불편하시자 벽에 기대앉아 손가락 끝으로 울고 그름을 가르쳐주셨다. 우리는 스승님의 마지막 순간의 모습까지도 말씀 없는 법문으로 새기면서 스승님의 임종을 맞았다.

당신의 에너지를 한 톨도 남김없이 다 쓰고 가시는 모범을 보이신 그때가 90년 6월 7일 오전 7시경이었다.

내가 삼보정사에서 좌선하던 때의

스님의 본래면목입니까?" 하니, 스님께서 "그대로다" 하셨다. 나는 합장한 후 자리에 앉아 잠시 동안 대화로서 근본자리를 확인한 후 되돌아 나왔다. 90년 4월 23일 진관사에 들르신 혜인사 부방장 혜암 스님을 친견하였다. 스님은 말씀으로 탁마해 주셨는데, 자기 공부는 자기가 잘 안다면서 오매일 여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다. 한번 경계를 봐도 행위가 생멸심에 끌려 다니면 그런 공부 아니라고 충고하셨다. 나는 나의 스승님 외에 두 분의 큰 스승께 누구한테서도 들을 수 없는 법을 봐도 행위가 생멸심에 끌려다니면서 공부할 수 있어 다행이었다.

선을 수행하는 사람은 이는 것만으로도 자위하지 않고 실천이 중요하다. 특히 생활 속의 행위 하나하나가 선도리를 벗어나지 않다. 외계의 사물에 무심하면서도 지금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 그것은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성실히 살려는 태도와 같다.

이 글을 읽는 독자에게 한 마디 질문을 던지면서 끝맺고자 한다. "나(넌)는 누구인가?"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있는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세요.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한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44용지 4장)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thatishy@buddhapia.com

관절염에 "글루코사민사카트리지"

서울대 병원에서 효능A등급 제품으로 선정

글루코사민 사카트리지란?

- 미국에서 효능을 인정받은 관절염양제
- 관절치료제인 기존의 글루코사민보다 효능을 높이기 위해 상어연골, 갈슘, 비타민, 이연, 망간 등 관절과 연골의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를 첨가한 복합제
- 이 물질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임상결과 그 우수한 효능발표 - 미국, 일본, 선진국에서도 인정
- 연골의 파괴 효소를 막고 연골을 생성 촉진하는 제제

주요성분 및 특징

- 제품의 내용량: 글루코사민 사카트리지 180정(2개월분) × 3병
- 1정당 성분 및 함량: 글루코사민 500mg, 상어연골분말(드라이드천황위) 400mg, 구연산칼슘 150mg, 비타민 C 75mg, 비타민 B, 비타민 D3, 토크페롤, 이연, 망간 등
- 섭취대상자: - 관절과 연골영양공급이 필요한 노약자, 갱년기 여성, - 무릎이 쭈시고 계단을 오르내릴때 불편하신 분, - 관절이 심한 통증과 뻣뻣함을 느낄때
- 관절염이란? 뼈에 영양을 공급해 뼈속이 좋아야만 낫는 병입니다.

복용시 =

- 2-3주후면 효과발현 시작
- 4-8주면 30~50% 호전 단계
- 6개월이면 90% 이상이 만족

*** 글루코사민은 1일 1500mg을 6주이상 지속적으로 섭취하야 효과가 볼 수 있습니다.**

*** 복용량은 몸무게에 맞게 먹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본 제품은 재정경제부고시(소비자보호법 제12조 제2항)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의거, 교환 또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수입지(원산지): 미국 수입 완제품
- 신용카드 구매 가능

상담문의 : 080-631-4525
부산시 동구 범일2동 830-274번지 세종별관 3층 서부통상

지광원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위치 및 시설개요

-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북계동 116
- 대상: 만 65세 이상, 노환스님 또는 부부, 개인 등 저차하고 하는 모든 불자
- 정원: 24명~30명 내외
- 시설개요: 본 건물 → 방규묘(약 7평) 24실(각실 인터넷 설치), 법당, 팔각정자 부대시설 → 제2 물리치료실, 목욕탕, 이·미용실, 식당, 오락실
- 입방비부담: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 자비부담
- 연락처: 전화 031)759-5320, 팩스 031)759-4209

보살 염불원의 특징

- > 남산성지 자리에 위치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 넓었다. 부처님을 모시고 염불과 기도정진으로 마음을 뒤으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내시도록 새로운 기도처를 마련하였습니다.
- > 20년간의 무료 노인요양원인 사회복지법인 부처님마음 자광원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전문지식에 의하여 설계된 노인을 위한 기도처입니다.
- > 의롭고 우물하게 혼자서는 노인 또는 부부노인중 한분의 활동만으로 의·식·주 해결에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낙원입니다.
- > 자신들에게는 호도의 기회를 노인들에게는 인력한 여생을 제공하며 임종 시까지 정성껏 모셔드리고 있습니다.
- > 고부간의 갈등으로 고민하시는 분
- > 홀로계신 시아버님, 오시기가 어려우신 분 자광원에서 해결하여 드립니다.

2002년 5월 15일 개원 대한불교 조계종 자광원

명당을 만들어 주면 영이 바뀝니다 명당 육박방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영이 바뀌면 좋은 운으로 바뀝니다.** **좋은 운으로 바뀝니다.** **재수없는 일들과 불화와 액운이 사라지고 새로운 앞길이 열리며 새로운 운이 있게 되고 새로운 관운, 명예, 재물이 옵니다.**

이것이 첫번이다 **명당육박방 051)865-9933**

전도제 49재와 결번된 처방법 전회주이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문 명당육박방은 각 시·관,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책당여리 책당여리 황금당여리 책기막힌 책이틀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